

保護와 利用의 調和

韓國 國立公園協會 會長 薛 國 煥



우리는 開發과 成長만을 지나치게 強調하다 보니 여러 部門에서 힘겨운 問題들이 머리를 듣게 되어 安定을 지녀야 된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이 사는 社會가 安定되어야 할 것은 勿論이지만 어느 程度의 開發과 成長이 이루어진 다음이라야 지 처음부터 安定을 強調한 나머지 開發과 成長을 禁忌로 하다가는 發展하는 國際社會에서 뒤지고 만다. 지금 우리는 國家的으로 開發과 成長이 安定을 強調해야 할 만한 水準에 와 있는지, 成長과 安定을 어떻게, 어떠한 水準에서 調和되게 할 것인지 慎重히 檢討되어야 할 時代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自然資源은 60年代 以後의 開發優先에 따라 相當한 變化를 보인 경우도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를 代表하는 自然景觀地域 特히 國立公園은 初期에서부터 保護를 基調로 하는 開發計劃이 樹立되었고 自然保護運動이 全國土, 全國民에 擴大되면서 開發과 保護의 均衡이 새로운 課題로 크게 抬頭되었다.

自然保護運動은 國民의 余暇活動이 增大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推進되므로써 余暇活動의 터가 되는 自然景觀地域 特히 國立公園地域은 커지는 利用壓력과 充實해지는 保護管理의 調和가 어려운 問題로 登場하게 되었고 利用의 壓力이 큰 경우에는 保護를 위하여 利用을 制限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國立公園指定의 理念이 自然景觀保護와 國民의 利用增大에 있음에 비추어 保護에 치우쳐 利用을 規制하거나 利用만을 위하여 保護를 度外視하는 것은 基本趣旨에 어긋나는 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公園을 保護하면서도 利用을 增進하므로써 國土自然의 保存과 國民의 自然希求感을 充足시켜주는 調和를 이루는 슬기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國立公園運動을 통하여 이 어렵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政府나 一部 特定人에게만 期待하지 않고 온 國民의 參與 속에 國民運動으로 昇華시켜 우리 自然의 保護와 利用이 調和를 이루게 하여 슬기로운 民族의 모습을 다시 들어내야 한다.